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5〉 깨달음을 얻는 법

깨달음 드러내면 승가에 차별 낳는다



지난 법문에서 저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예류과를 얻으면 자신이 존재한다는 유신견이 사라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보다 바른 견해에 다다르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한 첫해에 아잔 차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했던 즈음에 아잔 차 스님은 자신의 사원이 망고 과수원이고 그 망고 나무들은 부처님이 심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부처님은 태국에 가지도 않았고 2,500년 전에 심은 망고 나무가 남아 있을 리도 없습니다. 모두 방편적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망고 나무에 수천 개의 망고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고 향기로운 망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기어올라가서는 결코 망고를 딸 수 없으며 무엇을 던지거나 나무를 흔드는 것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망고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고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뿐이고 그렇게 있으면 망고가 저절로 손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잔 차 스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 밑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야 망고가 떨어집니까? 그리고 망고가 떨어진다고 해도 벌린 손 안에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떨어진다면 아마 머리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후에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열반을 얻기 위해 나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기어올라가서도 안 되고 사다리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으면 깨달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나무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였는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노력할 것이고 어쩌면 밤을 새워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좌절하게 되면 그때 저의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무를 흔들지 마십시오. 그저 나무 밑에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 손에 떨어집니다.

견해–인식–생각의 순환

예류자가 되면 승가에 대해 커다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승가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승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승가라는 것은 부처님이 남기신 유산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유에서 상좌부 전통에 비구니 승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유산 중의 일부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류자에게는 여전히 탐진치의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무아를 이해한 예류자의 단계에서 어떻게 욕심이나 분노 같은 번뇌가 남아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견해가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이 다시 견해를 강화시킵니다. 그런 악순환을 통해 인지 과정의 왜곡이 지속되고 강화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견해가 경험과 생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모든 경험을 다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째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에 반대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신이 없다는 어떠한 증거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견해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인식에서 받아들인 일차적인 정보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됩니다. 인식한 것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멸의 자아, 우주적 의식, 궁극적 존재, 죽지 않는 불사의 마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수행 중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도반 스님 중에도 불사의 마음에 대해 가르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계율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좋은 스님들인데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맞추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 얻기 위한 많은 노력
시간 낭비 이어진 사례 많아
바른 견해 시작으로 얻게 돼
다만 깨닫고 침묵 유지해야

제가 그들의 견해를 반박하면 그들은 저도 깊은 수행을 경험하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어쩐지 기독교인들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면 그 견해에 따라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믿으면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불멸의 자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견해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왜곡의 악순환을 부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왜곡을 깨는 방법은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장애가 없으면 더 이상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기대하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류자가 되면 장애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다시는 전에 가졌던 견해대로 세상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수행의 여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견해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 첫 번째가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경전에서는 예류자를 '견해를 구족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견해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견해를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라는 버스에는 운전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예류자가 되면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바른 견해를 잊기도 합니다. 오래된 습관이 모습을 드러내어 바른 견해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는 예류자였지만 부처님이 편찮으실 때는 법이 온통 분명치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실 때는 문틀에 기대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예류자 상태의 좋은 예입니다. 예류자는 바른 견해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류자는 성인에 포함되지만 마음이 가끔씩 옛날 방식과 옛날 생각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바른 견해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바른 견해의 힘이 강해지면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마음가짐'이 정화됩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번뇌가 없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쉽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라

바른 견해를 가지면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고 바른 인식으로 바른 견해를 보완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상윳따 니까야〉의 '케마까 경'에는 불환자와 아라한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환자가 된 사람은 인식이 정화되어 있지만 간혹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케마까 경'에는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위해 사용했던 세제의 냄새가 남아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미세하게 아직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형태가 아니라 생각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가 불환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자가 선정에 집착하는 위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수행자는 선정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에 대한 집착은 불환자가 아라한이 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집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른 견해를 통해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고 마침내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합치해서 더 이상 바라는 마음도 없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라한입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신이 불환자나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환자나 아라한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침묵하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비구니 스님은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부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번 말하면 나머지 평생 동안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인생을 소비할 것이다."

부처님은 승려들이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도 자신이 깨달았다고 재가 신도에게 말하는 것을 계율로 금했습니다. 승려가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은 승가 안에 차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가의 구성원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해져야 합니다. 신도들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누가 깨달은 스님이고 누가 범부인지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동등하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침묵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명상 수련회의 마지막 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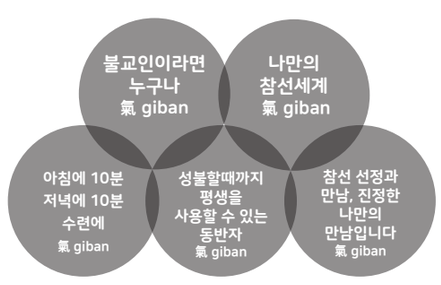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